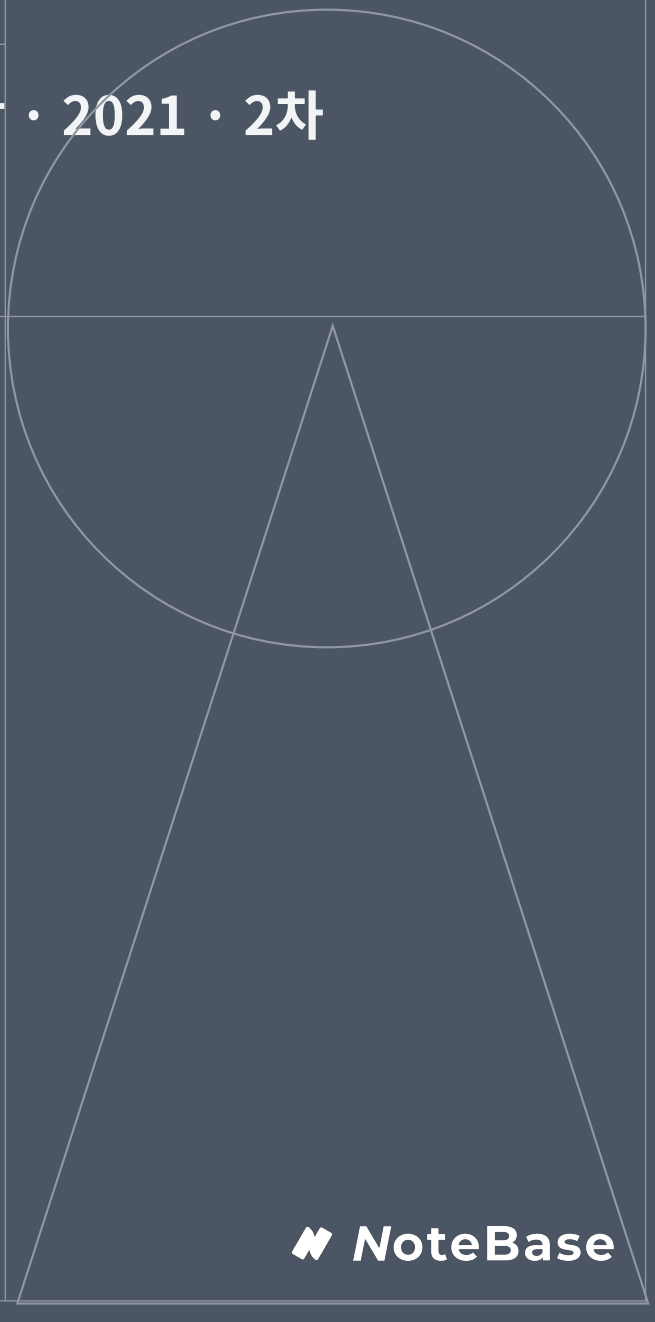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1 · 2차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1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1 · 2차

**문 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이론상 욕구를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구분할 때, 성장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안전의 욕구

② 소속과 애정의 욕구

③ 자존의 욕구

④ 자아실현의 욕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5단계를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눌 때 어느 욕구가 성장 욕구에 속하는지를 묻는다. 결핍 욕구는 채워지면 동기가 줄어드는 욕구이고, 성장 욕구는 채울수록 오히려 더 추구하게 되는 욕구라는 점이 구분의 핵심이다.

**핵심 정리**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5단계는 하위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배열된다. 이 중 앞의 4단계(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는 결핍 욕구로 분류되며,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충족되면 그 욕구의 힘이 약해진다. 반면 자아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로 분류되며, 충족될수록 만족이 줄기는커녕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향한 동기가 강해지는 특징을 가진다. 매슬로우는 이후 이론을 보완하며 자아실현 욕구를 성장 욕구의 대표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네 욕구는 모두 결핍 욕구로 묶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안전의 욕구: 위계상 2단계로 결핍 욕구에 해당한다. 신체적 위험이나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로, 충족되면 그 추구가 줄어든다. 오답이다.
② 소속과 애정의 욕구: 위계상 3단계로 결핍 욕구에 해당한다. 집단에 속하고 사랑받으려는 욕구로, 채워지면 동기가 약해진다. 오답이다.
③ 자존의 욕구: 위계상 4단계로 결핍 욕구에 해당한다. 타인과 자신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욕구로, 이 역시 채워지면 그 힘이 줄어든다. 오답이다.
④ 자아실현의 욕구: 위계상 최상위 단계로 성장 욕구에 해당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로, 충족될수록 더 강하게 추구하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 정답이다.

### 오답 포인트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를 구분하는 기준을 '욕구의 중요도'나 '상위·하위 단계' 자체로 오해하면 안 된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충족되었을 때 동기가 어떻게 변하는가'이다. 안전,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는 모두 위계상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정교해지지만, 충족되면 동기가 줄어든다는 공통점 때문에 결핍 욕구로 묶인다. 자아실현의 욕구만이 유일하게 충족될수록 동기가 더 커지는 성장 욕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라는 표현이 나오면 먼저 자아실현의 욕구를 찾는다. 5단계 중 자아실현의 욕구 하나만 성장 욕구이고 나머지 네 단계(생리적, 안전, 소속과 애정, 자존)는 전부 결핍 욕구라는 이분 구도를 기준으로 선지를 소거한다.

### 암기 포인트

매슬로우 5단계: 생리 → 안전 → 소속과 애정 → 자존 → 자아실현. 앞의 4단계는 결핍 욕구,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만 성장 욕구로 암기한다.

NoteBase

**문 2. 정보처리이론에서 장기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각기억
② 의미기억
③ 일화기억
④ 절차기억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보처리이론(정보처리 관점의 기억 모형)에서 기억 저장소의 단계 구분과, 장기기억 내부의 하위 유형 구분을 함께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감각기억과 장기기억의 하위 유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정보처리이론은 인간의 기억을 정보가 저장되는 시간과 용량에 따라 감각기억, 단기기억(작동기억), 장기기억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감각기억은 외부 자극이 아주 짧은 시간(1~2초 이내) 동안 원래 형태 그대로 머무르는 최초 단계의 저장소로, 장기기억이 아니라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기 이전의 별도 단계이다. 반면 장기기억은 정보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곳으로, 그 내부가 다시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으로 나뉜다. 서술적 기억(선언적 기억)은 의미기억(개념·사실·원리 등 일반 지식)과 일화기억(개인이 겪은 사건·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나뉘고, 절차적 기억은 절차기억(운동 기술이나 습관처럼 수행 방법에 관한 기억)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감각기억: O(정답) → 감각기억은 정보처리이론에서 장기기억이 아니라 장기기억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별도의 저장소이다. 시각적 감각기억(영상기억)과 청각적 감각기억(음향기억)으로 나뉘며,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정보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장기기억과 구별된다.
② 의미기억: X → 장기기억 중 서술적 기억에 속하는 하위 유형으로, 개념·원리·일반 지식처럼 특정 시간·장소와 무관한 사실적 지식에 대한 기억이다.
③ 일화기억: X → 장기기억 중 서술적 기억에 속하는 하위 유형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시간과 장소의 맥락과 함께 저장하는 기억이다.
④ 절차기억: X → 장기기억 중 절차적 기억에 해당하는 하위 유형으로,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처럼 반복 연습을 통해 습득한 기술·절차에 대한 기억이다.

**오답 포인트**

②③④는 모두 장기기억의 하위 유형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헷갈리기보다는, ①의 감각기억을 장기기억의 한 종류로 착각하는 것이 이 문항의 주된 함정이다. 감각기억은 저장 시간이 극히 짧아 장기기억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별개의 기억 단계임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감각기억, 단기기억(작동기억)처럼 저장 시간이 짧은 개념이 섞여 있으면 우선 장기기억 후보에서 제외한다. 남은 선지들이 의미기억·일화기억·절차기억처럼 장기기억의 하위 유형인지를 확인하고, 그중 성격이 다른 하나(예: 서술적 기억 vs 절차적 기억)를 찾는 방식으로도 재검증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억 단계: 감각기억 → 단기(작동)기억 → 장기기억. 장기기억의 하위 구조: 서술적 기억(의미기억·일화기억) / 절차적 기억(절차기억). 감각기억은 장기기억이 아니라는 점을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3. 다음에 해당하는 이론은?**

◯ 특정한 행동을 관찰하고 흉내내는 모델링
◯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되는 대리학습
◯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유사한 행동을 하는 관찰학습

① 톨만(Tolman)의 잠재학습
② 반두라(Bandura)의 사회인지학습이론
③ 쾰러(Köhler)의 통찰학습
④ 브루너(Bruner)의 발견학습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세 가지 특징인 모델링, 대리학습, 관찰학습은 모두 반두라(Bandura)의 사회인지학습이론(사회학습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 문제는 학습이론가별 대표 개념을 정확히 짝짓는 인물·이론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이론은 인간이 직접 강화를 받지 않아도 타인(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본다. 모델링은 관찰한 특정 행동을 그대로 흉내 내는 과정을 말하고, 대리학습은 모델이 강화나 처벌을 받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관찰자 자신도 그 행동의 결과를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관찰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후 유사한 행동을 재현하는 학습 전체 과정을 가리킨다. 이 세 개념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모두 사회인지학습이론의 하위 요소로 함께 다루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톨만의 잠재학습은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일어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필요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지지도 중심의 학습으로, 관찰·모델링과는 무관하다 → X
②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이론은 모델링, 대리학습, 관찰학습 개념을 모두 포함하며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 O
③ 쾰러의 통찰학습은 유인원 실험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의 요소들을 갑자기 재구성하여 해결책을 얻는 학습으로 타인의 행동 관찰과는 관련이 없다 → X
④ 브루너의 발견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이나 원리를 탐구하여 발견하는 학습으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 X

NoteBase

###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관찰',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두라의 이론으로 바로 연결하지 못하고 통찰학습(쾰러)이나 발견학습(브루너)처럼 이름이 학습 관련 용어로 낯익은 다른 이론가와 혼동하기 쉽다.
모델링·대리학습·관찰학습 세 용어는 항상 세트로 반두라와 함께 암기해 두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모델링, 대리학습, 관찰학습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나오면 다른 선택지를 검토할 필요 없이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이론으로 바로 판단한다. 학습이론가 문제는 이름과 핵심 개념을 1대1로 짝지어 놓고, 제시문의 키워드가 그 짝의 정의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빠르게 풀린다.

### 암기 포인트

반두라=모델링·대리학습·관찰학습(사회인지학습이론) / 톨만=잠재학습(인지지도) / 쾰러=통찰학습(유인원, 문제해결의 갑작스러운 재구성) / 브루너=발견학습(학습자 스스로 원리 탐구).

NoteBase

**문 4. 다음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 같은 집단에 특성이 비슷한 두 개의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두 검사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구한다.
◯ 기억효과와 연습효과가 감소된다.

① 검사-재검사 신뢰도
② 동형검사 신뢰도
③ 반분 신뢰도
④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검사-재검사, 동형검사, 반분, 문항내적 일관성) 중에서 제시된 절차의 특징으로부터 해당 방법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핵심 단서는 '같은 집단에 특성이 비슷한 두 개의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두 검사점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다는 점, 그리고 '기억효과와 연습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 집단에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 두 점수 간 상관을 구하는 방법으로, 같은 문항을 반복하므로 기억효과와 연습효과, 성숙 효과가 개입할 위험이 크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문항 내용은 다르지만 난이도·문항수·형식 등 특성이 비슷하도록 제작한 두 개의 검사(동형검사)를 같은 집단에 각각 실시하여 두 점수 간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문항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사-재검사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기억효과와 연습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한 뒤 문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두 반분 점수 간 상관을 구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하지 않는다.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예: 크론바흐 알파)는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하고 문항들 간의 동질성 정도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역시 검사를 두 번 실시하지 않는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검사-재검사 신뢰도 — X. 같은 검사를 두 번 실시하는 방법이므로 '두 개의 검사를 각각 실시'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고, 오히려 기억효과와 연습효과가 문제로 지적되는 방법이라 '효과가 감소된다'는 진술과도 반대된다.
② 동형검사 신뢰도 — O. 특성이 비슷한 서로 다른 두 검사를 같은 집단에 각각 실시하고 두 점수 간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산출하며, 문항 자체가 다르므로 기억효과와 연습효과가 감소한다는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반분 신뢰도 — X. 검사를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실시한 뒤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두 개의 검사를 각각 실시'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④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 X.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하고 문항 간 동질성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두 개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조건과 상관계수를 산출한다는 절차 모두 맞지 않는다.

### 오답 포인트

검사를 '몇 번' 실시하는지가 1차 구분 기준이다. 두 번 실시(검사-재검사, 동형검사)와 한 번만 실시(반분, 문항내적 일관성)로 먼저 나눈 뒤, 두 번 실시하는 경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지(검사-재검사) 다른 형태의 동형검사를 쓰는지(동형검사)로 나누어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기억효과·연습효과 감소'라는 문구만 보고 이 효과가 없는 방법을 무작정 떠올리면 반분 신뢰도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로 잘못 넘어가기 쉬운데, 이 두 방법은 애초에 검사를 두 번 실시하지 않으므로 '기억효과가 감소한다'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방법들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뢰도 문제는 항상 '검사를 몇 번 실시하는가'와 '무엇을 비교해 상관계수를 구하는가'를 먼저 표시해 두고 접근한다. 두 번 실시+동일 문항이면 검사-재검사, 두 번 실시+유사하지만 다른 문항이면 동형검사, 한 번 실시+반으로 나눔이면 반분, 한 번 실시+문항 간 동질성이면 문항내적 일관성으로 분류한다.

### 암기 포인트

동형검사 신뢰도 = 다른 문항, 같은 특성, 두 번 실시, 기억·연습효과 감소. 검사-재검사 신뢰도 = 같은 문항, 두 번 실시, 기억·연습효과 문제됨. 반분·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 검사는 한 번만 실시.

NoteBase

**문 5. 다음에 해당하는 학자는?**

◯ 기존의 교육을 은행예금식 교육으로 비유하면서, 기존의 교육이 피억압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비인간화한다고 비판한다.
◯ 대화의 교육방식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할 것을 주장한다.

① 지루(Giroux)
② 프레이리(Freire)
③ 애플(Apple)
④ 잭슨(Jacks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은행예금식 교육 비판과 문제제기식 교육이라는 개념을 제시어로 주고, 이를 주장한 학자를 짝짓는 인물·이론매칭형 문항이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학 핵심 용어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핵심 정리**

프레이리는 전통적 교육을 은행에 예금하듯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은행예금식 교육으로 비유하며, 이는 학습자(피억압자)를 수동적 존재로 만들고 비인간화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통해 세계를 함께 탐구하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억압적·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길러 인간해방과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지루(Giroux) — 비판적 교육학 계열 학자로 저항 이론과 문화정치학을 다루지만, 은행예금식 교육이라는 용어는 프레이리 고유의 개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프레이리(Freire) — 은행예금식 교육 비판과 문제제기식 교육을 통한 인간해방을 주장한 학자로, 제시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애플(Apple) — 교육과정 사회학 관점에서 학교 교육과 이데올로기, 문화적 재생산의 관계를 분석한 학자로, 은행예금식 교육 비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④ 잭슨(Jackson) —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을 제시한 학자로, 은행예금식 교육이나 문제제기식 교육 주장과는 무관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루, 애플처럼 프레이리와 같은 비판적·급진적 교육학 계열로 묶이는 학자들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은행예금식 교육이라는 표현과 대화식·문제제기식 교육이라는 대안은 프레이리의 저서에 등장하는 고유 용어이므로, 계열이 비슷하다고 다른 학자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은행예금식 교육, 피억압자, 문제제기식 교육, 대화식 교육, 인간해방 같은 표현이 나오면 곧바로 프레이리를 떠올린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언급되면 잭슨, 교육과정과 이데올로기·재생산이 언급되면 애플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프레이리 = 은행예금식 교육 비판 + 문제제기식(대화식) 교육 + 인간해방으로 묶어 암기한다.

NoteBase

**문 6.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가) ~ (라)에 들어갈 발달단계를 A ~ D와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신뢰감 대 불신감 - (가) - (나) - 근면성 대 열등감 - (다) - (라) - 생산성 대 침체감 - 통합성 대 절망감
A.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
B. 주도성 대 죄책감
C. 정체성 대 역할혼미
D. 친밀감 대 고립감

① (가): A, (나): B, (다): C, (라): D
② (가): A, (나): B, (다): D, (라): C
③ (가): B, (나): A, (다): C, (라): D
④ (가): B, (나): A, (다): D, (라): C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이 제시하는 8단계의 순서와 각 단계의 명칭(위기 대립쌍)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빈칸의 앞뒤에 이미 제시된 단계(신뢰감 대 불신감, 근면성 대 열등감, 생산성 대 침체감, 통합성 대 절망감)를 기준으로 빠진 단계를 순서대로 채워 넣어야 한다.

**핵심 정리**

에릭슨의 8단계는 다음 순서로 이어진다.
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영아기)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유아기)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학령전기)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학령기)
5단계 정체성 대 역할혼미(청소년기)
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성인초기)
7단계 생산성 대 침체감(성인중기)
8단계 통합성 대 절망감(노년기)
문제의 배열에서 신뢰감 대 불신감과 근면성 대 열등감 사이에는 2단계와 3단계가, 근면성 대 열등감과 생산성 대 침체감 사이에는 5단계와 6단계가 들어가므로 (가)=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A), (나)=주도성 대 죄책감(B), (다)=정체성 대 역할혼미(C), (라)=친밀감 대 고립감(D)이 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가) A, (나) B, (다) C, (라) D → O. 순서대로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 주도성 대 죄책감, 정체성 대 역할혼미, 친밀감 대 고립감이 배치되어 8단계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② (가) A, (나) B, (다) D, (라) C → X. (다)와 (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근면성 대 열등감 다음 단계는 정체성 대 역할혼미(C)이고, 그다음이 친밀감 대 고립감(D)이므로 D와 C의 위치가 서로 바뀌면 발달 순서에 맞지 않는다.
③ (가) B, (나) A, (다) C, (라) D → X. (가)와 (나)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신뢰감 대 불신감 다음은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A)이고 그다음이 주도성 대 죄책감(B)이므로 순서가 반대다.
④ (가) B, (나) A, (다) D, (라) C → X. (가)·(나)뿐 아니라 (다)·(라)까지 모두 순서가 뒤바뀐 오답이다.

###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단계 자체의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발달 순서를 헷갈려서 틀리기 쉽다. 특히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2단계)와 주도성 대 죄책감(3단계)의 선후 관계, 정체성 대 역할혼미(5단계)와 친밀감 대 고립감(6단계)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제에 제시된 확정 단계(신뢰감 대 불신감, 근면성 대 열등감, 생산성 대 침체감, 통합성 대 절망감)를 좌표로 삼아 몇 번째 단계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빈칸이 몇 단계와 몇 단계 사이에 있는지를 계산해 해당 순번의 단계명을 채워 넣으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다.

### 암기 포인트

에릭슨 8단계는 '신자주근정친생통'(신뢰-자율-주도-근면-정체성-친밀-생산성-통합)처럼 앞글자를 이어 순서대로 외워 두면 빈칸 채우기형 문제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NoteBase

**문 7. 타일러(Tyler)가 제시한 학습경험 선정의 일반적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성과의 원리

② 가능성의 원리

③ 통합성의 원리

④ 만족의 원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학습경험 선정의 원리'와 '학습경험 조직의 원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원리군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적용 단계가 다르므로, 어떤 원리가 선정 단계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핵심 정리**

타일러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학습경험을 고르는 기준으로 다음 원리를 제시한다. 기회의 원리(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해 볼 기회를 제공해야 함), 만족의 원리(학습자가 학습활동 자체에서 만족을 느껴야 함), 가능성의 원리(학습자의 현재 수준과 능력에 맞는 경험이어야 함, 학습가능성의 원리라고도 함), 다경험의 원리(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경험이 이용될 수 있음), 다성과의 원리(하나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학습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이와 달리 통합성의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과 함께 '학습경험 조직의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학습경험 사이의 수평적 연관성을 갖추어 학습자가 통합된 안목과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다성과의 원리 (X, 오답 아님) - 하나의 학습경험이 여러 가지 학습성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로, 타일러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에 해당한다.
② 가능성의 원리 (X, 오답 아님) -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수준에서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학습경험이어야 한다는 원리로, 학습경험 선정 원리에 해당한다.
③ 통합성의 원리 (O, 정답) - 통합성의 원리는 계속성·계열성과 함께 학습경험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여러 학습경험을 수평적으로 관련지어 통합된 학습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학습경험을 '고르는' 선정 원리가 아니라 이미 선정된 경험들을 '엮는' 조직 원리이므로 학습경험 선정의 일반적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만족의 원리 (X, 오답 아님) - 학습자가 학습활동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로, 학습경험 선정 원리에 해당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선정의 원리(기회·만족·가능성·다경험·다성과)와 조직의 원리(계속성·계열성·통합성)를 한 목록으로 섞어서 외우면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혼동하기 쉽다. '통합성'이라는 단어만 보고 막연히 익숙하다는 이유로 선정 원리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통합성', '계속성', '계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학습경험 '조직'의 원리로 분류하고,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학습경험 '선정'의 원리로 분류한다. 문제에서 '선정'과 '조직' 중 어느 단계를 묻는지부터 확인한 뒤 소거법으로 접근한다.

### 암기 포인트

선정의 원리는 '기·만·가·다·다'(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로, 조직의 원리는 '계·계·통'(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으로 묶어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8. 롸이겔루스(Reigeluth)의 교수설계이론에서 제시한 교수방법의 세 가지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전략

② 전달전략

③ 평가전략

④ 관리전략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라이겔루스(Reigeluth)의 정교화이론(elaboration theory)에서 교수방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전략 요소를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정교화이론은 교수설계를 조직전략, 전달전략, 관리전략의 세 축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이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핵심 정리**

조직전략은 교수내용을 어떤 순서와 구조로 선정·계열화·종합·요약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으로, 다시 개별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관한 미시적 조직전략과 여러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선정·계열화·종합·요약할지에 관한 거시적 조직전략(정교화 계열법이 대표적)으로 나뉜다. 전달전략은 교수내용을 학습자에게 어떤 매체와 기법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다. 관리전략은 학습자와 교수 프로그램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관리·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으로, 자원 및 매체의 관리, 학습자 통제 등을 다룬다. 정교화이론은 이 세 가지(조직전략·전달전략·관리전략)를 교수방법의 하위 구성요소로 제시하며, 별도의 독립된 범주로서 '평가전략'을 두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조직전략 — X(오답 아님, 즉 정교화이론이 실제로 제시하는 전략에 해당). 교수내용의 선정·계열화·종합·요약에 관한 전략으로 정교화이론의 핵심 축 중 하나이다.
② 전달전략 — X(오답 아님). 교수내용을 어떤 매체와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할지에 관한 전략으로 정교화이론이 제시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③ 평가전략 — O(정답, 즉 세 가지 전략에 해당하지 않음). 정교화이론이 제시하는 교수방법의 세 가지 전략은 조직전략·전달전략·관리전략이며,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자체를 지칭하는 '평가전략'이라는 명칭의 독립된 전략 범주는 두지 않는다.
④ 관리전략 — X(오답 아님). 학습자와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의 관리·통제에 관한 전략으로 정교화이론이 제시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정교화이론의 세 전략(조직·전달·관리)은 이름이 서로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아 헷갈릴 요소가 적은 편이지만, '평가'라는 단어가 교수설계 전반에서 워낙 자주 등장하다 보니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정교화이론에서 평가는 별도의 '전략' 범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조직전략이 다시 미시적/거시적 조직전략으로 나뉜다는 세부 구조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수방법의 전략'을 묻는 문항에서 선지에 조직전략·전달전략·관리전략이 그대로 나오면 이 세 가지가 정교화이론의 정답 구성요소이며, 평가전략·설계전략·개발전략처럼 ADDIE나 일반 교수설계 절차에서 쓰이는 용어가 섞여 나오면 그것이 정교화이론 고유의 전략이 아님을 우선 의심한다.

### 암기 포인트

정교화이론의 세 전략은 '조직·전달·관리'로 묶어 외운다. 조직전략은 다시 미시적(단일 아이디어 교수)과 거시적(계열화·종합·요약, 줌렌즈 비유의 정교화 계열법)으로 나뉜다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9. 위긴스(Wiggins)와 맥타이(McTighe)가 제시한 이해중심교육과정(백워드 설계)의 세 가지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습자의 요구와 상황 분석하기

②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③ 학습경험 계획하기

④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위긴스와 맥타이의 이해중심교육과정(백워드 설계)은 목표부터 거꾸로 짚어 나가는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다. 이 모형의 설계 절차가 정확히 세 단계로 구성된다는 것과 각 단계의 명칭·순서를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통상적인 교육과정 개발에서 앞세우는 '학습자 요구 및 상황 분석'이 백워드 설계의 공식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핵심 개념

백워드 설계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바라는 학습 결과, 즉 목표와 이해를 먼저 설정한다).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그 목표 달성 여부를 무엇으로 평가할지, 즉 평가 계획을 목표 다음에 정한다). 3단계 학습경험과 수업 계획하기(목표와 평가 계획이 정해진 다음에야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한다). 이 순서 자체가 '목표 → 평가 → 수업'으로 거꾸로(backward) 간다는 의미에서 백워드 설계라 불린다. '학습자의 요구와 상황 분석하기'는 타일러(Tyler)식 전통적 교육과정 개발이나 요구 분석 단계에서 강조되는 활동으로, 백워드 설계의 세 단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선지별 해설

① 학습자의 요구와 상황 분석하기 → X. 백워드 설계의 세 단계(바라는 결과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학습경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이므로 이 문항이 요구하는 정답이다.
②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 O. 백워드 설계의 1단계에 해당한다.
③ 학습경험 계획하기 → O. 백워드 설계의 3단계에 해당한다.
④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 O. 백워드 설계의 2단계에 해당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이므로, 세 단계 중 익숙해 보이는 표현을 정답 단계로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③·④는 순서만 뒤섞여 제시되어 있을 뿐 모두 백워드 설계의 실제 단계이며, ①만 백워드 설계 자체에 없는 표현이다. '요구 분석'이라는 말이 교육과정 개발 일반에서 흔히 등장하다 보니 백워드 설계에도 있을 것이라고 혼동하기 쉬운데, 백워드 설계의 출발점은 요구 분석이 아니라 목표(바라는 결과) 설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백워드 설계 문제는 세 단계의 순서(목표 확인 → 평가 증거 결정 → 학습경험 계획)를 먼저 떠올린 뒤, 선지에 제시된 표현이 이 세 단계 중 하나로 바꿔 말할 수 있는지 대조한다. 세 단계 어디에도 대응되지 않는 표현(요구 분석, 내용 선정, 환경 조성 등)이 나오면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암기 포인트

백워드 설계 3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 →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 학습경험(및 수업) 계획.
목표(Goal)-평가(Evidence)-수업(Learning) 순서로 외워 둔다.

NoteBase

**문 10.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②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교원의 요구, 학생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정답 3번**

**쟁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학교급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기본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학교가 실제로 교육과정을 짜고 굴릴 때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다. 이 문항은 네 선지 중 세 개가 앞의 '기본 사항'에 속하고 하나만 뒤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속한다는 점을 노려, 소속 범주가 다른 선지를 골라내게 한다.

**용어 풀이**

학년군: 여러 학년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 학년 간 연계와 유연한 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단위(초등학교 1~2·3~4·5~6학년, 중학교 1~3학년 등).
집중이수: 특정 학기나 학년에 교과목을 몰아서 이수하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는 방식.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는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3학년에 적용되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 등)으로 편성되는 교육과정.

**핵심 구분**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기본 사항)'에 들어가는 것: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학교급 구분(④), 학년군 설정(①), 교과(군) 재분류, 집중이수(②) 등 편제의 큰 틀.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들어가는 것: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을 실제로 편성·운영할 때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를 고려하도록 한 절차 규정(③). 즉 ③은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기준'이 아닌 다른 범주(학교 차원의 편성·운영)에 속한다는 점에서 답이 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는 학교 급별 편성·운영의 기본 사항에 그대로 제시된 기준이다.
② O: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도 기본 사항에 포함된 기준이다.
③ X: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여건)를 반영·고려한다는 내용은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기본 사항)'이 아니라 개별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항목에 속한다 → 학교 급별 편성·운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④ O: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는 기본 사항의 첫 번째 기준으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이다.

### 오답 포인트

③의 서술 자체(학교가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와 여건을 고려한다)는 총론에 실제로 존재하는 옳은 내용이라, 진위만 보면 맞는 문장으로 읽혀 오히려 정답에서 배제하기 쉽다.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소속(범주) 판별형이므로, 문장이 참인지가 아니라 그 문장이 '학교 급별 편성·운영의 기준'에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특정 범주 소속을 묻는 경우, 네 선지 중 세 개가 편제의 큰 틀(공통·선택 중심 구분, 학년군, 교과(군) 재분류, 집중이수)에 관한 것이고 하나만 '학교가 실제 운영할 때 무엇을 고려한다'는 절차·태도 서술이면 그 하나를 답으로 고른다. 참·거짓을 따지기 전에 각 선지가 어느 절(기본 사항 vs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온 문장인지를 먼저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암기 포인트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 사항' 4대 골격 = 공통 교육과정(초1~중3)+선택 중심 교육과정(고1~3) / 학년군 설정 / 교과(군) 재분류 / 집중이수.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여건 고려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쪽 항목으로, 기본 사항과 구분해 외워 둔다.

NoteBase

**문 11. 다음에 해당하는 서양 근대의 교육사조는?**

◯ 교육은 합리적인 자연의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는 교육 방법의 원칙을 채택한다.
◯ 교육의 목표를 사회적 분업에 따른 유용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둔다.

① 계몽주의
② 국가주의
③ 인문주의
④ 신인문주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서양 근대 교육사조(계몽주의·국가주의·인문주의·신인문주의)를 방법 원리와 목적의 두 축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첫 번째 특징은 교육 '방법'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교육 '목적'에 관한 것이므로, 이 두 축이 동시에 부합하는 사조를 찾아야 한다.

**핵심 개념**

계몽주의 교육사조는 17~18세기에 이성과 합리성을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는 근본 원리로 삼았다. 방법 면에서는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발달 원리, 즉 합리적인 자연의 법칙에 합치하는 교육 방법을 추구했고(자연주의적·합리주의적 방법론), 목적 면에서는 개인을 사회적 분업 체계 속에서 쓸모 있는 존재로 길러 내는 실용적·공리적 인간 양성을 지향했다.
국가주의 교육사조는 19세기 이후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 양성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방법보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애국심 함양이 핵심이다.
인문주의 교육사조는 14~16세기 르네상스기에 고전어(라틴어·그리스어)와 고전 문헌 연구를 통한 교양인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신인문주의 교육사조는 18세기 말~19세기 초 고전 연구를 통해 개인의 조화로운 인격 완성과 개성 발현을 목적으로 했으며, 페스탈로치·헤르바르트 등이 대표적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계몽주의: O. 첫 번째 특징인 '합리적인 자연의 원리에 합당한 교육 방법'은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와 자연법칙에 따른 방법론을 결합한 계몽주의의 방법론적 특징과 일치하고, 두 번째 특징인 '사회적 분업에 따른 유용한 인간 양성'은 계몽주의가 강조한 실용적·공리주의적 목적관과 일치한다.
② 국가주의: X. 국가주의의 목적은 사회적 분업에 따른 유용한 인간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국민 양성이며, 합리적 자연의 원리라는 방법론적 특징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③ 인문주의: X. 인문주의는 고전 문헌 연구를 통한 교양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합리적 자연의 원리에 따른 방법이나 사회적 분업에 따른 유용성이라는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④ 신인문주의: X. 신인문주의는 고전을 통한 개인의 인격 완성과 개성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분업에 따른 유용한 인간 양성이라는 실용적·공리적 목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 오답 포인트

국가주의와 계몽주의를 혼동하기 쉬운데, 국가주의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가 목적의 핵심이고 계몽주의는 '사회 전체에 유용한 인간'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공리적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인문주의와 신인문주의는 둘 다 고전을 중시하지만, 인문주의는 고전어·형식 습득에, 신인문주의는 고전을 통한 개인의 내적 인격 도야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으며, 두 사조 모두 이 문제의 '합리적 자연의 원리에 따른 방법'이라는 단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이 방법과 목적 두 요소로 나뉘어 제시되면 각 요소를 따로 분리해 어떤 사조의 특징인지 표시한 뒤, 두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합리성·자연의 원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계몽주의를, '국가·충성·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국가주의를, '고전어·문예 부흥'이 나오면 인문주의를, '개성·인격 완성·조화로운 발달'이 나오면 신인문주의를 먼저 떠올린다.

### 암기 포인트

계몽주의=이성/합리적 자연법칙의 방법+사회에 유용한 인간(공리적 목적), 국가주의=국가에 충성하는 국민 양성, 인문주의=고전어를 통한 교양인 양성, 신인문주의=고전을 통한 개성과 인격의 조화로운 완성으로 각각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2.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크게 문과, 무과, 잡과의 세 종류로 나뉜다.

② 3년에 한 번, 식년(式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잡과의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로 치러진다.

④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종류·시행 주기·단계 구성·합격 후 진로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문과와 잡과의 시험 단계 수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핵심 개념

과거는 문과·무과·잡과 세 갈래로 나뉜다. 문과와 무과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로 치러지며, 전시는 이미 합격이 결정된 응시자의 순위만을 정하는 절차다. 반면 잡과(역과·의과·율과·음양과 등 기술관 선발 시험)는 전시 없이 초시-복시의 2단계로 끝난다. 정기 시험인 식년시는 3년마다(자·묘·오·유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과인 생원시·진사시의 합격자에게는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시대 과거는 문관을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의 세 종류로 크게 나뉜다.
② O: 과거는 3년마다 돌아오는 식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식년시라 한다.
③ X: 잡과는 초시와 복시의 2단계로만 치러지고 전시가 없다. →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는 문과(대과)에 해당하는 설명이며, 잡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O: 생원시와 진사시(소과)의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 오답 포인트

문과의 3단계 구성(초시-복시-전시)을 과거제도 전체 또는 잡과에도 그대로 적용해 착각하기 쉽다. 전시는 순위만 가리는 절차로 문과에만 있고, 잡과와 생원시·진사시(소과)에는 전시가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몇 단계로 치러진다'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시험(문과인지 잡과·소과인지)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전시가 있는 시험은 문과뿐이라는 기준 하나만 정확히 적용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바로 풀린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과거 3종=문과·무과·잡과. 전시가 있는 시험은 문과뿐(초시-복시-전시). 잡과·소과(생원시·진사시)는 초시-복시 2단계. 정기 시험=식년시(3년 주기). 소과 합격자=성균관 입학 자격.

NoteBase

**문 13. 종교개혁이 서양 근대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의 구심점이 국가에서 교회로 이동하였다.

② 성서 중심 교육이 중시되어 교육의 종교화를 초래하였다.

③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라틴어 대신에 모국어가 성경과 교육의 언어로 사용되면서 교육의 보편화에 기여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16세기 종교개혁이 서양 근대교육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묻는 문항이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사제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개인이 직접 읽고 해석하도록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각국 모국어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성경과 교육의 언어가 라틴어에서 모국어로 옮겨 가면서 문자 해독과 교육의 대상이 성직자·귀족 중심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는 교육의 보편화·대중화가 촉진되었다는 점이 이 시기 교육사의 핵심 흐름이다.

**핵심 개념**

종교개혁 이전 중세교육은 라틴어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성직자 양성 위주로 이루어졌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국어 성경 번역과 초등 문자교육의 확산으로 교육의 세속화·보편화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각국 군주와 국가 권력이 교회의 교육 권한을 점차 흡수하여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는 흐름(공교육 사상의 토대)이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강조는 이후 루소·페스탈로치 등 자연주의·아동중심 교육사상에서 등장하는 내용으로 종교개혁과는 시대적·사상적으로 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종교개혁 이후 교육의 구심점은 오히려 교회에서 국가(세속 권력)로 옮겨 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가에서 교회로 이동하였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다.
② X. 종교개혁은 성서를 직접 읽고 이해하도록 모국어 성경 번역과 문자교육 보급을 이끌어 교육의 세속화·보편화로 이어졌다. 성서 중심 교육이 교육의 종교화를 초래하였다는 서술은 종교개혁이 가져온 실제 변화 방향과 어긋난다.
③ X.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강조는 근대 자연주의 교육사상(루소, 페스탈로치 등)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으로, 종교개혁의 영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④ O. 루터 등의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각국 모국어로 번역하였고, 그에 따라 성경과 교육의 언어가 모국어로 바뀌면서 성직자·귀족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교육의 대상이 확대되는 교육의 보편화가 촉진되었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종교개혁이 가져온 변화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한을 강화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화·국가교육 확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③은 시대와 사상적 계보가 다른 아동중심 교육사상의 내용을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잘못 연결한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교개혁 + 근대교육'이 함께 나오면 우선 모국어 성경 번역과 그로 인한 교육의 보편화·세속화를 떠올린다. 교회 권한 강화나 교육의 종교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으면 오답으로 판단하고, 아동 발달단계·아동중심 같은 서술이 보이면 이는 근대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내용이므로 종교개혁과는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종교개혁 = 라틴어에서 모국어로(성경·교육 언어), 교육의 세속화·보편화·대중화 확대. 교회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무게 중심 이동.

NoteBase

**문 14. 교육행정의 원리 중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원리는?**

① 민주성의 원리
② 적도집권의 원리
③ 자주성의 원리
④ 합법성의 원리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교육행정의 원리 중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이라는 두 축의 적정한 균형을 다루는 원리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교육행정의 원리로 흔히 제시되는 민주성·자주성·합법성·능률성·효율성·적도집권 등의 원리 중에서, 문항이 요구하는 핵심어는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균형'이며 이는 명칭 자체가 답을 가리키는 적도집권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 핵심 개념

적도집권의 원리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무의 성격과 상황에 맞추어 그 조화와 균형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원리이다. 민주성의 원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과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단적 행정을 배제하려는 원리이다.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정치적·종교적 영향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합법성의 원리는 모든 교육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이다.

### 선지별 해설

① 민주성의 원리: X → 이 원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와 공개, 의견 수렴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균형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② 적도집권의 원리: O →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적정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정의 자체가 문항이 묻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자주성의 원리: X → 이 원리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독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루는 것으로 집권과 분권의 균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④ 합법성의 원리: X → 이 원리는 교육행정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을 의미하며, 집권과 분권의 정도를 조율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포인트

민주성·자주성·합법성은 모두 교육행정의 원리에 속하지만 각각 참여, 독립성, 법적 근거라는 서로 다른 측면을 규정하는 원리이므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균형'이라는 문항의 핵심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원리의 명칭과 정의를 짝지어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유사한 원리들 사이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항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면 곧바로 적도집권의 원리를 떠올린다. 반대로 '참여·공개'가 나오면 민주성, '정치적 중립·전문성·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가 나오면 자주성, '법에 근거·절차 준수'가 나오면 합법성으로 연결 지어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적도집권=집권과 분권의 균형, 민주성=참여와 공개, 자주성=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정치적 중립, 합법성=법에 근거한 행정으로 각 원리를 한 단어씩 짝지어 암기한다.

NoteBase

**문 15. 20세기 교육행정 이론의 핵심 주장을 등장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학생의 표준화, 교수방법의 표준화, 교사의 자격 강화 및 훈련의 과학화
(나) 동기유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민주적인 권력구조, 고도로 앙양된 사기
(다) 학교조직 목적의 불분명함, 교사·행정가·장학 요원이 사용하는 기술의 불명확성, 참여자의 유동성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다) → (가) → (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20세기 교육행정 이론이 등장한 시기 순서를 묻는 문항이다. (가)는 과학적 관리론, (나)는 인간관계론, (다)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쓰레기통 모형) 이론의 핵심 주장을 서술한 것으로, 각 이론이 강조하는 개념을 통해 등장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올바른 순서**

(가) 과학적 관리론(20세기 초, 1910~1920년대) → (나) 인간관계론(1930~1940년대) → (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1970년대)의 순서로 등장한다.
(가)는 학생의 표준화, 교수방법의 표준화, 교사 자격 강화와 훈련의 과학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학교 조직에 적용되던 시기의 특징이다.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는 동기유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민주적인 권력구조, 고도로 앙양된 사기를 강조하는데, 이는 과학적 관리론의 기계적·통제적 접근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특징이다.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사회적 욕구와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다)는 학교조직 목적의 불분명함, 사용하는 기술의 불명확성, 참여자의 유동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학교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로 규정한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목표가 모호하고 기술이 불확실하며 구성원의 참여가 유동적인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쓰레기통 모형과 연결된다. 이 이론은 앞선 두 이론보다 늦은 시기에 등장하여 학교조직의 특수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가) → (나) → (다):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 순으로, 등장 시기에 맞게 나열되어 있다. (O)
② (가) → (다) → (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이 인간관계론보다 먼저 등장한 것으로 배열되어 시기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X)
③ (나) → (가) → (다): 인간관계론이 과학적 관리론보다 먼저 등장한 것으로 배열되어 시기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X)
④ (다) → (가) → (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으로 배열되어 시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X)

###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각 이론의 핵심 개념어를 먼저 식별한 뒤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데, 표준화·과학화라는 단어와 동기·사기·민주적 권력구조라는 단어, 그리고 목적의 불분명함·기술의 불명확성이라는 단어를 혼동하면 순서를 잘못 배열하기 쉽다. 특히 인간관계론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은 둘 다 조직의 비합리적·비공식적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혼동될 수 있으나, 인간관계론은 구성원의 심리와 사기에 초점을 두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은 조직 자체의 목표·기술·참여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표준화·과학화 같은 단어가 나오면 과학적 관리론, 동기·사기·민주적 의사소통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인간관계론, 목적의 모호함·기술의 불확실성·참여의 유동성 같은 단어가 나오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쓰레기통 모형)으로 즉시 분류한 뒤,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의 순서로 등장했다는 시간적 흐름을 적용해 순서를 확정한다.

### 암기 포인트

교육행정 이론의 등장 순서는 과학적 관리론(표준화·능률) → 인간관계론(동기·사기·인간관계)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론(목표 모호·기술 불확실·참여 유동)의 흐름으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6.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설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ㄴ. 서열화와 분류가 가능하다.
ㄷ. 상징을 형성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ㄹ.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4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대략 7~11세)에서 나타나는 사고 특성과 나타나지 않는 사고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ㄱ~ㄹ 각 진술이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인지, 아니면 전조작기나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순으로 진행된다. 전조작기(약 2~7세)에는 언어와 상징을 형성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와 물활론적 사고가 나타나고 보존 개념은 아직 획득되지 않는다. 구체적 조작기(약 7~11세)에는 구체적 사물이나 상황을 대상으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보존 개념, 서열화(사물을 크기·길이 등 기준으로 순서대로 배열), 분류(공통 속성에 따라 사물을 묶는 조작), 가역적 사고(어떤 조작을 역으로 되돌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를 획득한다. 형식적 조작기(약 11세 이후)에는 구체적 대상 없이도 추상적·가설적 명제를 다루는 가설연역적 사고와 조합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ㄱ. 가설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 X: 가설연역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획득되는 능력이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눈앞의 구체적 대상이나 익숙한 상황을 벗어난 추상적 가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사고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다.
ㄴ. 서열화와 분류가 가능하다 → O: 서열화와 분류는 구체적 조작기의 대표적 성취로, 구체적 사물을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거나 공통 속성별로 묶어내는 조작이 가능해진다.
ㄷ. 상징을 형성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 X: 상징의 형성과 사용이 시작되는 시기는 전조작기이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미 상징 사용 능력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논리적 조작 능력이 추가로 발달하는 단계이므로,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서술은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전조작기에 해당한다.
ㄹ.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 O: 가역적 사고, 즉 어떤 변화나 조작을 머릿속에서 거꾸로 되돌려 원래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은 구체적 조작기에 획득되는 핵심 특성이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보존 개념도 함께 획득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 오답 포인트

가설연역적 사고(ㄱ)를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한 단계 더 높은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이다. 또한 상징 형성·사용의 '시작'(ㄷ)을 구체적 조작기로 착각하기 쉬운데, 상징 사용은 이미 전조작기에서 시작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조작기의 새로운 성취로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단계별로 '이전 단계에서 이미 갖춘 능력'과 '해당 단계에서 새로 갖추는 능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등장하는 인지 능력을 감각운동기·전조작기·구체적 조작기·형식적 조작기 중 어느 단계에서 '처음' 나타나는지 먼저 매칭한다. 서열화·분류·가역적 사고·보존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 상징 사용의 시작은 전조작기, 가설연역적 사고와 조합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로 즉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암기 포인트

전조작기=상징 사용 시작, 자기중심성. 구체적 조작기=서열화·분류·가역적 사고·보존 개념. 형식적 조작기=가설연역적 사고·추상적 사고. 이 3단계의 대표 키워드를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17. 교육이론을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주의 이론으로 구분할 때, 기능주의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간자본론

② 재생산이론

③ 종속이론

④ 저항이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교육사회학의 거시이론을 기능주의(합의론) 계열과 갈등주의(갈등론) 계열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능주의는 교육이 사회 전체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배분된다고 보는 관점이고, 갈등주의는 교육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재생산하거나 계급 불평등을 정당화·재생산하는 도구라고 보는 관점이다.

**핵심 개념**

인간자본론=학교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소득과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기능주의 이론이다. 재생산이론=교육이 기존의 계급 구조와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그대로 대물림·재생산한다고 보는 갈등주의 이론이다(경제적 재생산론, 문화적 재생산론 등). 종속이론=선진국과 개발도상국(또는 저개발국) 간의 불평등한 경제·교육 구조를 지배-종속 관계로 설명하는 갈등주의 계열의 이론이다. 저항이론=학생(특히 노동계급 학생)이 학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계급 위치를 재생산해 간다고 보는 갈등주의 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인간자본론: O. 교육 투자를 통해 습득한 지식·기술(인적 자본)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인다고 보는 이론으로, 능력과 업적에 따른 합리적 배분을 전제하는 기능주의 이론에 해당한다.
② 재생산이론: X. 교육이 계급 불평등을 대물림한다고 보는 갈등주의 이론이므로 기능주의가 아니다.
③ 종속이론: X.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 구조로 교육·경제 관계를 설명하는 갈등주의 계열 이론이므로 기능주의가 아니다.
④ 저항이론: X. 학생의 저항을 통한 계급 재생산을 설명하는 갈등주의 이론이므로 기능주의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재생산이론·종속이론·저항이론은 모두 '재생산', '지배-종속', '저항'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불평등한 사회관계가 유지·반복된다는 갈등주의적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반면 인간자본론은 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이 곧 생산성과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점에서 이 셋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주의 이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론 이름에 '재생산', '종속', '저항', '갈등', '헤게모니', '문화자본' 등이 들어가면 갈등주의 계열로, '인간자본', '능력주의', '기술기능주의', '합의' 등이 들어가면 기능주의 계열로 우선 분류한다. 이렇게 이론명의 핵심 어감만으로도 상당수를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능주의=인간자본론·기술기능이론·능력주의(합의, 배분의 합리성).
갈등주의=재생산이론(경제적·문화적)·종속이론·저항이론·지위경쟁이론(불평등의 재생산·저항)으로 짝지어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18. 보빗(Bobbitt)의 교육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에 과학적 관리기법을 적용하였다.

② 원만한 성인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준비로서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③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을 주장하였다.

④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보빗(Bobbitt)은 교육과정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성립시킨 초기 학자로, 20세기 초 산업 현장의 과학적 관리(테일러리즘)를 교육에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성인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이 문항은 보빗 이론의 핵심 특징과, 그와 대비되는 아동 중심(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보빗은 공장에서 원자재를 규격 제품으로 가공하듯, 학교도 아동을 성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존재로 가공하는 곳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성인의 직무(활동)를 분석하여 필요한 능력 목록을 추출하고, 그 목록에 따라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활동분석법(직무분석법)을 제시하였다. 즉 그의 교육과정관은 원만한 성인생활 준비, 과학적·효율적 관리기법 적용, 직무(활동)분석을 통한 목표·내용 설정이라는 세 축으로 요약된다. 반면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교육과정 구성의 중심에 두는 입장은 진보주의(아동 중심·경험 중심 교육과정, 예컨대 듀이 계열)의 특징이며, 보빗은 오히려 아동의 흥미보다 사회(성인 생활)가 요구하는 능력을 교육과정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선지별 해설**

① 옳은 설명이다. 보빗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효율성·표준화)을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한 대표적 학자이다.

② 옳은 설명이다. 보빗은 교육을 아동이 장차 원만한 성인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③ 옳은 설명이다. 보빗은 성인의 직무(활동)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도출하는 활동분석법(직무분석)을 교육과정 개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④ 틀린 설명이다 →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빗이 아니라 아동 중심(경험 중심) 교육과정론자들의 입장이다. 보빗은 아동의 흥미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인 생활 능력(직무분석 결과)을 교육과정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므로, 이 진술은 보빗의 이론과 반대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보빗 이론의 핵심 요소(과학적 관리기법, 성인생활 준비, 직무분석)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진술이라 소거되고, ④만 보빗이 아닌 아동 중심 교육과정론의 주장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아동의 흥미'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 보빗과 반대 진영(경험 중심)의 주장임을 바로 떠올려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음을 먼저 확인한 뒤, 선지 중 '아동의 흥미·요구·경험'을 키워드로 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이 보빗이 아니라 아동 중심 교육과정론의 주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고른다. 반대로 '과학적 관리', '직무(활동)분석', '성인생활 준비'가 나오면 모두 보빗의 정설이므로 옳은 진술로 처리한다.

### 암기 포인트

보빗=성인생활 준비+과학적 관리기법+직무(활동)분석 3세트로 암기하고, '아동의 흥미 중심'은 보빗이 아니라 아동(경험) 중심 교육과정론자의 특징으로 짝지어 구분한다.

NoteBase

**문 19. 20세기 미국의 재건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 자아실현의 추구이어야 한다.

② 교육은 문화의 기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질서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

③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행동과학의 연구성과에 의해 혁신되어야 한다.

④ 교사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건주의(reconstructionism)는 1950년대를 전후해 브라멜드(Brameld) 등이 주장한 교육철학으로, 진보주의의 개인 중심성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 문항은 재건주의의 기본 원리 네 가지 중 재건주의와 어긋나는 하나를 골라내는 개념비교형 문제이다. 재건주의는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성장이나 자아실현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질서의 건설, 즉 사회 재건에 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재건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문명은 심각한 문화적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교육은 새로운 사회질서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사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다수가 합의하는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 셋째,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행동과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학습자에게 민주적 방식으로 설득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교육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개혁의 도구로 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개인의 자유 존중과 개인적 자아실현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은 진보주의나 실존주의적 관점에 가까우며, 사회 재건이라는 재건주의의 지향과는 방향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개인의 자유 존중과 개인적 자아실현의 추구를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중심의 교육관으로서 사회의 재구성을 목표로 삼는 재건주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주의는 오히려 개인주의적 교육관을 비판하며 등장한 사조이다.
② O. 문화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질서 창조에 교육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재건주의가 내세우는 핵심 원리 그대로이다.
③ O.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행동과학의 연구 성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은 재건주의가 강조하는 원리에 해당한다.
④ O. 교사가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학습자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재건주의가 제시하는 교사의 역할에 해당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진보주의와 재건주의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두 사조 모두 20세기 미국 교육철학이지만, 진보주의는 아동의 흥미와 개인적 성장·자아실현을 중시하는 반면, 재건주의는 문화 위기 극복과 새로운 사회질서 건설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 ①처럼 '개인의 자유', '개인적 자아실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재건주의가 아니라 진보주의적 원리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개인의 자유', '개인적 자아실현', '아동 중심'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 재건주의가 아닌 진보주의·실존주의 계열의 원리로 판단한다. 반대로 '새로운 사회질서', '문화 위기 극복', '사회 재건', '행동과학 활용', '교사의 설득 역할'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 재건주의의 원리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재건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키워드이다. 재건주의 4대 원리는 문화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사회질서 창조, 민주적 합의에 의한 가치 수립, 행동과학에 의한 교육 혁신, 교사의 설득적 교육 역할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20. 호이(Hoy)와 미스켈(Miskel)의 학교조직에 대한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교는 하나의 개방된 사회체제이다.

② 학교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각종 투입이 이루어지고, 몇 가지 하위체제를 통해 전환이 일어난다.

③ 학교의 하위체제로는 기획 · 조직 · 명령 · 조정 · 통제 체제가 있다.

④ 학교의 산출로는 성취, 직무 만족, 출석(결석률), 중도탈락 등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호이와 미스켈이 제시한 학교의 사회체제모형(social systems model)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학교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보고, 투입-전환-산출의 흐름과 전환 과정에 작용하는 하위체제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호이와 미스켈의 사회체제모형은 학교조직을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 전환 과정을 거쳐 산출을 만들어 내는 개방체제로 설명한다. 전환 과정에서 작동하는 하위체제는 구조적 체제(규정·규칙 등 공식 조직), 개인적 체제(구성원의 욕구·동기·신념), 문화적 체제(가치·규범·의미 공유), 정치적 체제(권력·권위 관계) 네 가지이다. 산출로는 학업성취, 직무 만족, 출석률, 중도탈락률 등이 제시된다. 이와 달리 기획·조직·명령·조정·통제는 페이욜(Fayol)이 제시한 경영관리의 5대 기능으로, 사회체제모형의 하위체제 구분과는 다른 이론 체계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회체제모형은 학교를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원과 정보를 주고받는 개방된 사회체제로 규정한다.
② O — 학교는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 등 각종 투입을 받고, 하위체제를 통한 전환 과정을 거쳐 산출로 변환시킨다는 것이 이 모형의 기본 골격이다.
③ X — 하위체제로는 구조적 체제, 개인적 체제, 문화적 체제, 정치적 체제가 제시된다.
기획·조직·명령·조정·통제는 페이욜의 경영관리 기능이지 호이·미스켈이 제시한 학교의 하위체제가 아니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기획·조직·명령·조정·통제 체제" → "구조적·개인적·문화적·정치적 체제".
④ O — 사회체제모형에서 학교의 산출로 학업성취, 직무 만족, 출석(결석률), 중도탈락 등이 제시된다.

**오답 포인트**

페이욜의 경영관리 5대 기능(기획·조직·명령·조정·통제)과 호이·미스켈의 학교 사회체제 하위체제(구조적·개인적·문화적·정치적 체제)를 혼동하기 쉽다. 두 이론 모두 조직을 다루지만 출처와 구성 요소가 다르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하위체제의 명칭 자체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학교조직의 '하위체제'나 '구성 요소' 명칭이 나오면, 그것이 구조적·개인적·문화적·정치적 체제인지부터 확인한다. 기획·조직·지휘(명령)·조정·통제처럼 관리 기능을 나열한 표현이 보이면 이는 다른 이론(경영관리론)에서 온 것이므로 사회체제모형의 설명으로는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호이·미스켈 사회체제모형의 하위체제는 '구조·개인·문화·정치' 네 가지로 외워 둔다. 산출 지표는 성취, 직무 만족, 출석(결석률), 중도탈락으로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1. 초·중등교육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ㄴ. 국립·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ㄷ. 국립·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및 교과용 도서의 선정 등을 심의한다.
ㄹ. 학생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쟁점**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설치 의무 범위, 심의 사항, 학생 의견 청취 가능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ㄱ·ㄴ·ㄷ은 법령 규정과 일치하고 ㄹ만 규정에 어긋나므로, ㄱ·ㄴ·ㄷ을 고른 3번이 정답이다.

**용어 풀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교마다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심의: 안건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가 검토·의결하는 절차로, 국립·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의 형태를 취한다.

**핵심 구분**

구성원(맞음): 교원 대표 + 학부모 대표 + 지역사회 인사 3주체로 구성한다(학생은 정규 위원이 아니다).
설치 의무(맞음): 국립·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기구이다.
학생 의견(틀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ㄹ의 '들을 수 없다'는 반대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ㄱ O: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규정과 그대로 일치한다.
ㄴ O: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립·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기구이다. 과거 사립학교는 임의 설치였으나 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ㄷ O: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등을 심의(사립은 자문)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다.
ㄹ X: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 '들을 수 있다'가 옳다. 시행령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ㄹ은 규정과 반대되어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정답은 3번이다.

### 오답 포인트

ㄹ의 '학생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라는 앞부분 서술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학생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앞 문장이 맞다고 뒷 결론까지 옳다고 속단해 ㄹ을 포함한 2번·4번을 고르면 틀린다. 또한 학생이 정규 위원이 아니라는 점(구성원 3주체)과 학생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회의 참석·의견 청취 가능)은 서로 다른 사항임을 구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교운영위원회 문항은 네 가지 축으로 끊는다. ①구성원=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학생 제외), ②설치=국공립·사립 모두 의무, ③심의(국공립)·자문(사립) 사항에 교육과정 운영 방법과 교과용 도서 선정 포함, ④학생·교사 등 관계자 의견은 '들을 수 있다'(재량). '들을 수 없다', '사립은 임의', '학생이 위원' 같은 표현이 보이면 곧바로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학교운영위원회 = 교원·학부모·지역인사 3주체 / 국공립·사립 모두 의무 설치 /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 / 학생 의견은 참석시켜 '들을 수 있다'. 이번 정답 조합은 ㄱ·ㄴ·ㄷ(3번)이고, 함정은 '학생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ㄹ이다.

NoteBase

**문 22. 노울즈(Knowles)가 강조하는 성인 학습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한다.

② 아동 · 청소년과 달리 내적 동기만이 학습의 원동력이 된다.

③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학습 준비도가 결정된다.

④ 아동기의 수동적 · 의존적 자아개념에서 점차 주도적 · 독립적 자아개념으로 변화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노울즈(Knowles)의 안드라고지(andragogy) 이론이 제시하는 성인 학습자의 특징(자아개념, 경험, 학습 준비도, 학습 지향성, 학습 동기)을 정확히 구분해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특히 성인의 학습 동기가 '내적 동기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단정적·배타적 서술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된다.

**핵심 정리**

노울즈는 성인 학습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자아개념은 아동기의 의존적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서 점차 자기주도적인 상태로 옮겨간다. 성인은 살아오면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학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한다. 학습 준비도는 개인의 발달과업이나 사회적 역할(직장,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결정된다. 학습 지향성은 교과 중심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 중심적 성격을 띤다. 학습 동기는 임금 인상, 승진 같은 외적 동기도 작용하지만, 자존감 향상이나 삶의 만족과 같은 내적 동기가 더 강하고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즉 노울즈는 내적 동기의 비중이 크다고 보았을 뿐 외적 동기를 배제하거나 내적 동기만이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한다. → O. 성인 학습자는 아동에 비해 양과 질에서 풍부한 생활 경험을 지니며, 이 경험이 학습의 자원이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노울즈 이론의 핵심 전제이다.
② 아동·청소년과 달리 내적 동기만이 학습의 원동력이 된다. → X. 노울즈는 성인의 학습 동기에서 내적 동기(자존감, 성취감, 삶의 질 향상 등)의 비중이 크다고 보았지만, 임금 인상이나 승진 같은 외적 동기 역시 함께 작용한다고 보았다. '내적 동기만이' 원동력이 된다는 서술은 외적 동기의 작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지나친 단정으로 옳지 않다.
③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학습 준비도가 결정된다. → O. 노울즈는 학습 준비도가 발달과업 및 사회적 역할 변화와 연계되어 나타난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아동기의 수동적·의존적 자아개념에서 점차 주도적·독립적 자아개념으로 변화한다. → O. 자아개념의 발달 방향에 대한 노울즈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노울즈 이론에서 성인 학습자의 동기는 내적 동기의 비중이 '크다' 또는 '우세하다'는 것이지, 내적 동기가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뜻이 아니다. '~만이', '유일하게', '전적으로'처럼 다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단정적 표현이 선지에 나오면 이론의 실제 내용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울즈의 성인 학습자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자아개념(의존적→자기주도적), 경험(학습 자원으로 활용), 학습준비도(사회적 역할과 연계), 학습 지향성(문제 중심), 학습 동기(내적 동기 우세, 외적 동기도 병존) 다섯 가지 축으로 선지를 대조한다. 그중 '~만', '유일한' 같은 배타적 표현이 있는 선지는 우선적으로 의심한다.

### 암기 포인트

노울즈 안드라고지 5요소: 자아개념(자기주도적)·경험(학습자원)·학습준비도(사회적 역할 연계)·학습지향성(문제중심)·학습동기(내적동기 우세, 외적동기 병존↔'내적동기만'은 오답).

NoteBase

**문 23. 일리치(Illich)의 탈학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90년대 초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처음 등장하였다.

② 학습망(learning webs)을 통한 의무교육의 실현을 제안하였다.

③ 학교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④ 학습이 학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반드시 학습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일리치의 탈학교론(deschooling)이 언제 등장했고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등장 시기, 학습망 개념의 성격, 학교제도에 대한 입장, 학습과 학교의 관계에 대한 그의 핵심 주장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일리치는 저서 '탈학교 사회'에서 제도화된 학교교육이 오히려 학습을 억압하고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학교라는 획일적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누구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발적 네트워크인 학습망(learning webs)을 제안하였다. 즉 그의 핵심 주장은 '학습은 학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학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일리치의 탈학교론은 1970년대 초(1971년 '탈학교 사회' 발간)에 등장한 이론이다. 1990년대 초 등장했다는 서술은 시기가 틀렸다.
② X: 학습망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의무적·제도적 학교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자발적·비강제적 학습 네트워크이다. '의무교육의 실현'이라는 서술이 그의 취지와 정반대이다.
③ X: 일리치는 학교제도 자체의 폐지, 즉 탈학교(deschooling)를 분명히 주장하였다. 학교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서술은 그의 이론의 핵심과 어긋난다.
④ O: 일리치는 학습이 반드시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학습의 증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제시문 그대로 그의 주장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탈학교론의 등장 시기를 다른 교육개혁 논의(예: 1990년대 학교 다양화·자율화 논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학습망'을 의무교육을 보완·강화하는 장치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의무적 학교교육 체제 자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리치 관련 문항은 (1) 등장 시기는 1970년대 초, (2) 학교제도 자체의 폐지 주장, (3) 학습망은 의무교육이 아닌 자발적 학습 네트워크, (4) 학습과 학교(제도)는 별개라는 네 가지 축으로 선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빠르게 정답을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일리치=탈학교 사회(1970년대 초)=학교제도 폐지 주장=학습망(learning webs, 자발적·비의무적)=학습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재학이 곧 학습 증진을 보장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4. 서지오반니(Sergiovanni)가 제시한 문화적 지도성을 가진 지도자의 특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학교 구성원의 기대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높은 수행과 발전을 유도한다.

② 학교로 하여금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가치와 믿음, 관점을 창조하고 강화·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③ 미래 비전의 제시, 인상 관리, 자기희생 등을 통해 학교의 과업 수행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강한 동기를 유발한다.

④ 학교 구성원 각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하게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서지오반니(Sergiovanni)는 학교 지도성을 기술적 지도성, 인간적 지도성, 교육적 지도성, 상징적 지도성, 문화적 지도성 다섯 가지 힘으로 구분한다. 이 문항은 그중 문화적 지도성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문화적 지도성은 학교를 하나의 독특한 문화 공동체로 보고, 그 학교만의 가치·신념·규범을 만들고 지켜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가리킨다.

**핵심 개념**

문화적 지도성(cultural leadership)=학교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유된 가치·신념·의미체계를 창조하고 결속시키며 유지하는 힘. 상징적 지도성(symbolic leadership)=지도자가 학교의 중요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상징적 행동과 모범으로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힘.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지만, 문화적 지도성은 '학교 고유의 가치·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상징적 지도성은 '지도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한 의미 전달'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구성원의 기대와 동기를 자극해 높은 수행과 발전을 이끄는 것은 인간적 지도성(human leadership) 또는 동기부여 중심의 지도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며, 학교 고유의 가치·정체성 형성이라는 문화적 지도성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

② O: 학교로 하여금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가치와 믿음, 관점을 창조·강화·유지한다는 서술은 문화적 지도성의 정의 그 자체이다. 서지오반니는 문화적 지도성을 학교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지켜 나가는 힘으로 규정했으므로 이 선지가 가장 관계가 깊다.

③ X: 미래 비전 제시, 인상 관리, 자기희생을 통해 강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설명은 카리스마적·변혁적 지도성의 특징에 가깝다. 서지오반니의 다섯 가지 지도성 구분 중 문화적 지도성이 아닌 다른 힘(또는 변혁적 지도성 이론)의 설명이다.

④ X: 구성원 각자가 자율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분산적 지도성(distributed leadership) 내지 임파워먼트 중심 지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문화적 지도성의 정의와는 다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서지오반니가 제시한 다섯 가지 지도성의 힘(기술적·인간적·교육적·상징적·문화적) 중 하나만 골라 각 선지에 배치한 구조이다. 각 선지가 어떤 지도성 개념을 설명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면 동기부여·비전제시·자율성 같은 일반적인 리더십 특징에 이끌려 오답을 고르기 쉽다. '독특한 정체성', '가치와 믿음', '창조·강화·유지'라는 표현이 문화적 지도성을 가리키는 핵심 단서임을 기억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항에서 '문화적 지도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곧바로 '학교 고유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치·신념·관점의 창조와 유지'라는 정의를 떠올린다. 선지 중 동기부여·비전제시·자율적 발휘 등 다른 지도성 유형의 특징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소거하고, 정체성·가치·문화 형성을 직접 언급한 선지를 정답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서지오반니의 다섯 가지 지도성: 기술적(계획·조직·관리)·인간적(대인관계·동기부여)·교육적(교육 전문성)·상징적(상징적 행동으로 목적 전달)·문화적(학교 고유의 가치·정체성 형성과 유지). 문화적 지도성=학교만의 색깔(가치·믿음·정체성)을 만들고 지키는 힘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25. 우리나라 근대 초등교육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어 근대적인 초등교원을 양성하였다.

② 통감부 시기에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이 보통학교에서 소학교로 바뀌었다.

③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에는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수업연한 상의 차별이 없었다.

④ 제2차 조선교육령(1922년)에 의해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 근대 초등교육 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 변화(소학교 → 보통학교 → 국민학교)의 순서와 시점, 그리고 각 조선교육령 시기의 수업연한상 차별 여부가 핵심 포인트이다.

**핵심 정리**

갑오개혁기(1895)에는 소학교령이 반포되어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소학교였고, 같은 해 한성사범학교관제가 공포되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통감부 시기(1906)에는 보통학교령이 제정되어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이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에서는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와 조선인을 위한 보통학교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업연한에 차별을 두었다(보통학교 4년, 소학교 6년). 제2차 조선교육령(1922년)에서는 이 차별을 완화하여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렸으나, 명칭 자체를 국민학교로 바꾼 것은 아니다.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뀐 것은 1941년 국민학교령에 의해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어 근대적인 초등교원을 양성하였다. → O. 1895년 한성사범학교관제 공포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고, 이 학교는 근대적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② 통감부 시기에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이 보통학교에서 소학교로 바뀌었다. → X. 순서가 반대이다. 통감부 시기(1906년 보통학교령)에는 그동안 사용되던 소학교라는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③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에는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상의 차별이 없었다. → X.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와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에 차별이 있었다(보통학교가 더 짧았다).
④ 제2차 조선교육령(1922년)에 의해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 X. 제2차 조선교육령은 수업연한상의 차별을 완화한 것이며,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뀐 것은 이보다 뒤인 1941년 국민학교령에 의해서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②와 ③, ④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제도 변화의 방향이나 시점을 뒤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명칭 변화의 방향(소학교→보통학교→국민학교)을 거꾸로 기억하거나, 수업연한 차별이 완화된 시점(제2차 조선교육령)과 명칭이 바뀐 시점(국민학교령)을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등 교육기관 명칭의 변천 순서를 시간순으로 먼저 떠올린다. 소학교(1895, 갑오개혁) → 보통학교(1906, 통감부 시기) → 국민학교(1941, 국민학교령)의 순서를 기준으로 각 선지의 명칭과 시기가 이 순서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제1차 조선교육령은 차별이 있던 시기, 제2차 조선교육령은 그 차별이 완화된 시기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 암기 포인트

1895년 소학교령·한성사범학교 설립 / 1906년 통감부 시기 보통학교로 개칭 /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 수업연한 차별 존재 /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 차별 완화(연한 연장) / 1941년 국민학교령 - 국민학교로 개칭, 이 다섯 시점을 순서대로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